

천불천탑 계곡서 신나는 축제를

현대화 과정에서 소원(疏遠)했던 사람과 지역주민의 공동체문화가 불교문화축제로 복원된다.

화순 운주사와 도암면은 '2004 화순 운주문화축제'를 오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운주사 일원에서 개최키로 하고 축제운영을 지역민이 직접 기획, 주관토록 했다.

이를 위해 화순군 도암면 번영회는 송승교 번영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하고 지역민 40여명으로 구성된 '2004 운주문화축제 추진위'를 구성,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운주축제 추진위는 '잃어버린 공동체를 찾아서'란 주제아래 속세와 정토세계를 이어주는 '운주로 가는 꿈'과 운주사 법당이 없던 시절 천불천탑 앞에서 초막을 짓고 불공 올리던 '초막 짓기', 운주사를 소재로 한 시와 음악의 만남 '포엠 콘

서트', 천개의 비누로 만드는 '천불조상', 천불 천탑과 어울린 문화잔치 '산사음악회'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운주축제 실무를 맡고 있는 김형만 집행위원장(광주불교방송 PD)은 "운주사 천불천탑은 종교적 신앙을 넘어 민중의 삶으로 승화된 역사의 산물"이라며 "그동안

묘사한 프로그램이다.

운주축제 추진위는 또한 공동체 복원을 위해 청년 100여명이 참여하는 '농촌일손 돕기'와 지역특산물인 '목화체험', 주민노래자랑, 지역출신 작가들의 초대전 등을 통해 공동체 회복의 취지에 걸맞게 사람과 축제 참가자, 지역민이 하나 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밖에 운주축제 기간에는 ▲사찰음식시식 ▲천불탑을 표정 찾기 ▲백일장 및 사생대회 ▲운주마당극 ▲연등 만들기 등 각종 체험 및 오락프로그램이 펼쳐져 재미를 더한다.

운주사 주지 정행 스님은 "운주축제를 계기로 천년의 신비를 간직된 운주사와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거듭나 또 다른 천년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61)374-0660

이준엽 기자

운주사·도암면 이달말 '운주축제' 지역활성화·상생의 한마당 기대

축제에서 소외된 지역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을 맡아 잃어버린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특히 금년에 신설되는 '운주로 가는 꿈'은 이번 축제의 결정판으로 주자장에서 경내까지 인공터널 운하를 만들어 축제 참가자들이 (속세에서)배를 타고 운주사(정토세계)에 들어가는 불교적 세계를

연등 만들기 등 각종 체험 및 오락프로그램이 펼쳐져 재미를 더한다.

운주사 주지 정행 스님은 "운주축제를 계기로 천년의 신비를 간직된 운주사와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거듭나 또 다른 천년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61)374-0660

이준엽 기자

음식물 zero '마음은 깨끗'

정토회, '빈그릇운동' 광주서 선포식



정토회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9월 23일 광주 우체국 앞에서 '음식 남기지 않기 10만인 서약 광주지역 선포식'을 갖고 '빈그릇운동' 동참서약과 거리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광주지역 선포식에는 평화실천광주 전남불교연대 상임대표 행법 스님, 광주시청 경운동연합 임낙평 사무처장, 광주시청 폐기물과 이교준 과장 등 지역 시민단체, 환경 관계자가 동참한 가운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 방안으로 '빈그릇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빈그릇운동'에 참가한 주부활동가들은 '밥그릇과 빈그릇'이라는 주제의 퍼포먼스와 거리홍보캠페인을 펼치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서명을 받았다.

이준엽 기자

한편 정토회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0일간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빈그릇운동-음식남기지 않기 10만인서약' 지역 선포식과 '10만 명 서명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영산보존회, 범음 범폐교육

한국 전통불교 영산보존회(해령 스님)는 불교전통의식인 '범음 범폐교육'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옥곡사 교육원에서 개최한다.

금년으로 6회째 맞는 이번 범폐교육은 <자법구경>을 관찬한 원명 스님을 비롯하여 해령, 호산, 월인 스님 등 불교의식 전수스님과 심만춘(동방불교대) 교수가 직접 강의한다.

교육기간동안에는 도량서, 종성, 조석에 불안채비, 걸채비(사물다루는 법, 막바라, 천수바라, 작법) 등의 의식을 직접 시연한다. (062)263-4575

이준엽 기자

제13회 행원문화상 시상

제13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이 주영운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월은 스님(동국역경원장)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4일 승가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역경상에 대립 스님(초기불전 연구원장), 문학상에 방송작가 윤정광 씨, 예술상에 동국대 손재현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노병철 기자

이준엽 기자

'강원불교문화 자원화 하자' 월정사·강원도민일보 세미나

평창 월정사(주지 정법)와 강원도민일보 사는 10월 10일 오후 3시 30분 월정사에서 '강원불교문화의 문화자원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광식 강원도민일보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세미나는 최웅천 국립춘천박물관장의 발제 아래 지현병 강원문화재단연구소 실장, 정영우 도문화재 전문위원, 박경립 강원대 교수, 심재중 前 강원도관광협회 부회장, 한정갑 월정사 불교대학 강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월정사측은 "세미나에서 강원불교문화 역사성과 특성 및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살펴보고, 강원불교문화 문화자원 활성화와 지역사회 가치 자원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정사는 10월 8일 오후 7시 월정사 대웅전 앞에서 '제2회 천년의 숲길 찾아가는 오대산 산사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날 영화제에서는 동화작가 구 정재봉 씨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초승달과 밤배'가 상영된다. (033)332-6664

남동우 기자

자비신행회, 불교 강좌 개설

지산·혜능 스님등 8회 걸쳐

광주·전남지역에서 불교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자비신행회(이사장 현장)가 '인간 붓다의 생애'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불교 강좌를 개설했다.

자비신행회 산하 한꽃불교아카데미는 10월 5일부터 시작해 11월 23일까지 자비신행회 법당에서 '21세기 현대인, 인간붓다를 만나다'란 주제의 강좌를 연다.

부처님 일대기를 팔삼도로 나누어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지산(송광사), 혜능(해인사 율원장), 재연(실상사 화엄학원 학장), 원경(송광사 강원 학장), 일장(유마사 주지), 법인(대흥사 수련원장), 현장(대원사 주지), 붓다락카다 스님이 강의를 맡는다.

또한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불교문화답사(10월 22일 봉화 청량사)와 '죽음을 준비합시다' 특별수련회(11월 20-21일 보성 대원사)를 갖는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061)234-2732

이준엽 기자

원각사, 中 관정 스님 초청법회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 10월 20일 '중국 관정 대사 초청 특별 마정수기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서 관정 스님은 정토선 법문 이어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마정수기법회를 직접 주관한다.

중국의 생불로 추앙받고 있는 관정 스님은 세계를 돌며 정토선을 지도하고 있다. (062)223-3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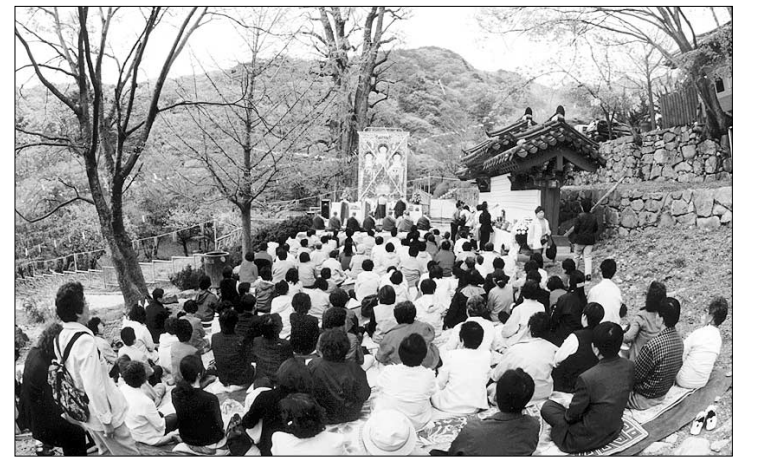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양평 용문사

"대중이 주인입니다"



지난해 음력 3월3일 열린 '은행나무축제' 모습.

양평 용문사(주지 의정)는 은행나무 사람이자.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호, 정3품목)를 보기위해 사찰을 찾는다. 마의태자의 지팡이 설화로 잘 알려진 용문사는 은행나무는 지난 천여 년 간 네 번의 큰 병화와 전란을 겪으면서도 조금도 불타지 않고 국교인 불교의 흥과 기상을 대변해왔다.

일부 사람들은 용문사가 은행나무를 내세운 관광 사찰로 만족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한다. 하지만 은행나무는 용문사의 상징일 뿐이다. 용문사의 진면목은 용문사 스님들과 신도들의

자리 잡은 사찰을 보는 그대로 느끼고, 그 안에 문화재 등을 통해 용문사가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불교에 대한 친밀감과 호감이 결국 포교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그것이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는 용문사가 선택한 포교방식이다.

그러나 용문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 단순한 전통사찰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3일 은행나무축제를 개최하고, 올해부터는 '가

관광객에게 친절한 안내, 최고의 포교효과

'걷고 싶은 길' 위해 진입로 시멘트 제거

의 따뜻한 마음에 있다. 용문사를 찾는 관광객들은 은행나무를 보고 감탄하고, 스님과 신도들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

용문사 스님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불교대학을 통해 신도들을 교육하고, 봉사활동을 유도하며 신도들을 비롯해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려 하지 않는다. 사찰의 주인은 스님이 아니라 대중이라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시 들리는 관광객이라도 그냥 보내는 법이 없다. 정답게 웃으며 다가와 용문사 안에 있는 은행나무와 정지국사 부도 및 비(보물 제531호), 금동관음보살좌상(지방유형문화재 제172호) 등 문화재를 상세히 설명한다. 화려한 산세 속에 고즈넉하게

장 걷고 싶은 길' 프로젝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프로젝트는 국립공원에서 용문사로 올라오는 오솔길과 진입로의 시멘트 포장을 뜯어내고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바꾸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걷기명상'과 '숲길명상' 등을 운영, 관광객들이 불교의 참선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생각이다. 또한 타종교인과 외국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기 위해 100명 수용 가능한 요사채도 건립할 계획이다.

용문사 부주지 보인 스님은 "용문사가 가진 지리·역사상의 이점들을 충분히 살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31)773-3797

김은경 기자

국난극복 소원성취 일광 스님의 합동영가천도 유주무주 선망부모 (태아령) 특별 합동영가천도

영가천도로서 유명한 一光 석일선 스님의 국난극복 성원성취 선망부모 유주 무주 태아령영가 합동 천도제를 지장도량 성거사에서 봉행하고자 하오니 그동안 영가의 장애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불자님들이나 내대 유산으로 남다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있는 불자님께서는 이번 합동 천도제에 꼭 동참을 하시어 엄장소멸과 함께 여러가지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고 만사소원 성취하시어 성불의 인연과 불은(佛恩)의 가피가 각 가정마다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남변 합동천도제때에 이미 많은 분들이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소원성취와 함께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며 소원성취를 하신 불자님이 많았고 그동안 많은 사찰에서 영가천도를 해보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금년에 합동천도제와 더불어 많은 불자님들이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합동 천도제 때에 생긴 영험담들.

- 합동천도제 전날 어떤 불자님은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어디론가 가는 꿈을 꾸기도 하였으며 합동 천도제 전날 '나를 보내달라'는 조상님의 선몽을 받기도 하였다.
- 어떤 불자님은 천도제를 지내고 쌀이 가득 쌓여있는 방에서 뒤(쌀을 푸는 도구)로 쌀을 한없이 퍼부어 담는 꿈을 꾸기도 하였고, 어떤 불자님은 천도제를 지내고 꿈에서 아궁이에 장작더미를 한아름을 집어넣고 불을 지피고 그 불길이 하늘로 한없이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사업성취) 천도제 이후로 양식장의 사업 수입이 두배로 늘어났으며, 아들이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뽑히기도 하였고(전라도 광양시), 또 어떤분은(경기도 수원시) 치매증세가 호전을 보였으며, 어떤분은(경기도 수원시) 매일같이 잠만자고 횡설수설하던 딸이 천도제 이후로 그러한 증세가 완전히 없어졌다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반항한 하던 아이가 모범생으로 바뀌었고, 어떤불자님(천안시 봉명동)은 평소엔 항상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천도제 이후로는 아팠던 증세가 말끔히 사라졌고, 어떤 불자님은(경기도 의정부시) 병원에서 못 고쳤던 허리 병이 천도제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으며 그외에도 여러 가지 믿기지 않는 일들이 눈에 띄도록 좋아졌고, 이룰수없을것만 같았던 일들이 성취가 되어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불자님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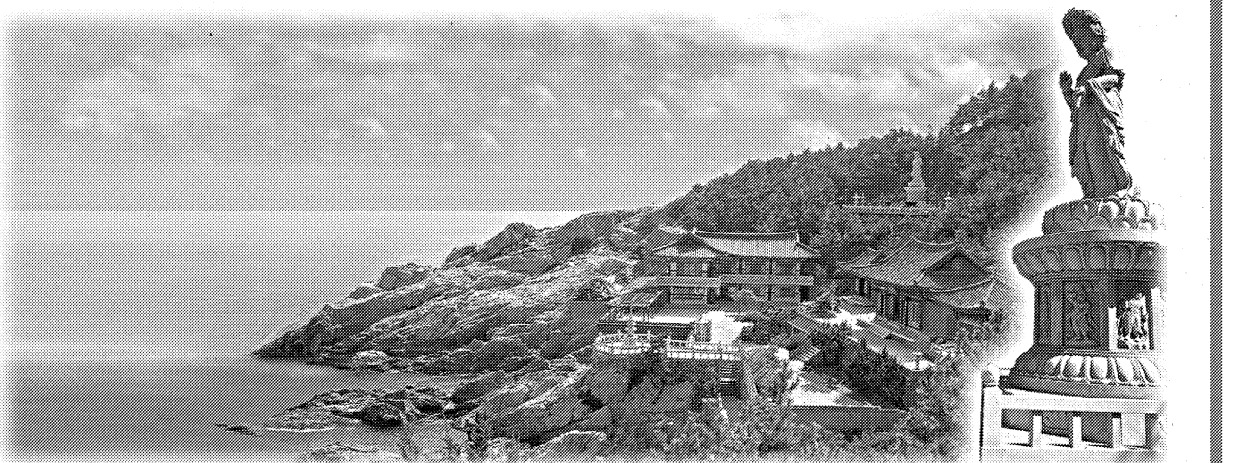
합동천도제 동참 일 시 : 2004년 10월 1일 오전 11시
 합동천도제 동참 일시금 : 한가족 10만원 동참 (농협 485047-52-060649 성거사)
 합동천도제는 매월 음력 초하루, 그믐, 지장재일에 봉행하며, 당일 100% 천도시키오니 오시기전날 지장경독송이나 지장정근을 하시고 오시면 더욱 큰 가피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역 → 강남터미널 매일 음력 초하루, 그믐, 지장재일 7시 30분에 서울버스 운행합니다. (성거사 전용 버스)

충남 천안시 목천면 송전리 282 지장도량 성거사 ☎ 041)567-6820, 567-6822
 전화접수라도 가능, 불참시에는 무통장에 입금하시고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이름을 알려주시면 동참을 못하시더라도 100% 천도시켜 드립니다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 대형 주차장 완비
- ◀ 입장료 무료
- ◀ 점심공양 가능
- ◀ 방생을 배달해 드립니다

www.yongkungs.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